

영어 문장부사의 의문문에서의 의미 해석: 증거성을 도입하는 부사를 중심으로

임동식*†

홍익대학교

Dongsik Lim. 2013. On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Sentential Adverbials in Interrogatives: Adverbials Which Introduce Evidentiality and Other Adverbials. *Language and Information* 17.1, 33–52. Some sentential adverbials in English, especially those which introduce evidentiality (hereafter evidential adverbials), such as *apparently*, *purportedly*, *reportedly*, and *allegedly*, exhibit what we call ‘the perspective shift’ in interrogatives: they are interpreted from the speaker’s perspective in declaratives, but are interpreted from the addressee’s perspective in interrogatives. To account for this phenomenon, we argue that English evidential adverbials are functions taking a proposition as its argument and returns a character in the sense of Kaplan (1989). We further show that, with this assumption, the perspective shift of evidential adverbials in interrogatives can be explained within the rather standard semantics of interrogatives (Hamblin 1973, among others) and of indexicals (Kaplan 1989). (Hongik University)

Key words: evidentiality, sentential adverbs, perspective shift, questions

1. 서론

증거성 (evidentiality) 은 화자의 단언 (assertion) 이 근거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에 대한 표시를 의미한다. 많은 언어에서 증거성은 증거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형태소 (이하 증거성 형태소: evidentials 또는 evidential markers) 를 통해서 표현된다. 예를 들어, St’át’imcets 어 (또는 Lillooet 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내륙에서 샬리쉬 원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에는 *kuʔ*, *k’a*, *-an* 이라는 세 종류의 증거성 형태소가 존재하며, 각각의 증거성 형태소는 화자의 단언이 남으로부터 들은 말, 추론, 직접 지각된 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가리킨다. (1) 은 이에 대한 정리이며, (2) 는 이 세 형태소의 실제 용례이다 (Matthewson *et al.* 2007: 202, 203 에서 재인용).

* 이 논문은 Lim (2010, 2013) 의 논의를 영어의 경우에 적용하여 본 것이다.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세 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서울시 마포구 외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dlim@hongik.ac.kr

- (1) St'át'imcets의 증거성 형태소
 Evidential Gloss
 ku7 reportative
 k'a inferential
 -an' (inference from) perceived evidence
- (2) a. wa7 ku7 ku sts'éts'quaz' l-ta stswáw'cw-a.
 be Report Det trout in-Det creek-Exis
 “[Reportedly] there are trout in the creek.”
- b. plan k'a tu7 wa7 tsu7c na máq7-a.
 already Infr then Impf melt(Inch) Det snow-Exis
 “The snow must have melted already.”
- c. pel'p-s-ácw-an' nelh nelklíh-sw-a
 lost-Caus-2sg.Conj-Perc.evid Det.Pl key-2sg.Poss-Exis
 “It looks like you've lost your keys.”

증거성 형태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거성은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영어의 경우 증거성의 표현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형태소는 없지만, 인지적 양상 조동사 *must*나 (von Fintel and Gillies 2010), 문장부사 *apparently*, *reportedly*, *purportedly*, *allegedly* 등이 증거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맥에 따라서는 문장의 주절이 증거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I saw that John beat Bill'에서 *I saw*와 같은 경우: Simons 2007 참조).

이 논문은 영어에서 증거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문장부사 (이하 증거성 문장부사)에 대해서 다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증거성 문장부사가 의문문에서 보이는 시점 이동 (perspective shift) 현상에 대해서 다룬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3a)와 (3b)를 비교해 보자.

- (3) a. Purportedly, John beat my son.
 b. Purportedly, did John beat my son?

(3a)는 John이 화자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자가 간접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동반하며, 이러한 비진리조건적 의미, 즉 증거성과 관련된 의미는 문장부사 *purportedly*에 의해 도입된다. 하지만 (3b)와 같은 의문문에서는 같은 부사가 다른 의미를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3b)에서 문장부사 *purportedly*는 John이 화자 자신의 아들을 때렸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자가 청자 자신의 간접적 증거에 기반하여 답할 것을 화자가 기대한다는 의미를 도입한다. 즉 평서문에서 *purportedly*는 화자의 시점을 반영하는 반면, 의문문에서 *purportedly*는 청자의 시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3b)에 대한 청자의 응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3b)에 대해 청자는 (4a)와 같이, 혹은 (4b)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 (4) a. Yes, (purportedly,) John beat your son.
- b. No, (purportedly,) John beat your son.

청자는 *purportedly*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대답이 간접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비록 *purportedly*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각각의 대답에는 그 대답이 청자의 간접적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진리조건적 의미가 따라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apparently, reportedly, allegedly* 등 증거성을 도입하는 다른 부사들이 의문문에 나타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¹

이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자 자신의 시점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증거성 부사는 — 다른 언어에서의 증거성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 일종의 지표어(indexical)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증거성 문장부사와는 다르게 지표어는 시점 이동 현상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 사실은 (3a)와 (3b)에서 *my son*은 언제나 화자 자신의 아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만약 (3b)에서 *my son*에 대해서도 시점 이동이 일어났다면 (3b)의 *my son*은 청자의 아들을 의미해야만 하지만, 영어에서 그러한 의미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표어와 증거성 형태소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포착해 줄 수 있는 의미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의 시점 이동은 증거성 문장부사뿐만 아니라 다른 문장부사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Garrett (2001) 등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honestly*와 같은 문장부사는, (5a)와 같은 평서문에서는 화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의미를 도입하지만, (5b)와 같은 의문문에서는 청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것을 화자가 기대한다는 의미를 도입한다.

¹ 심사자 중 한 분은 (3b)에 대한 대답, 즉 (4a)나 (4b)와 같은 대답이 (4'a)나 (4'b)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염두에 둘 때 증거성 문장부사가 포함된 의문문에서 시점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였다 (심사자의 의문은 reportative evidentiality를 도입하는 *reportedly*와 같은 부사에 관한 것이나, 간접 증거를 나타내는 *purportedly*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4') a. Yes, I have the indirect evidence regarding whether John beat my son.
- b. No, I don't have the indirect evidence regarding whether John beat my son.

즉, (4a)와 (4b)는 'Did John beat your son?'에 대한 답이지, 간접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3절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증거성의 의미가 비진리조건적 의미로 도입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즉 각각의 대답은, 심사자가 지정한 대로, 질문 그 자체, 즉 'Did John beat your son?'에 대한 답이 된다. 증거성의 의미는 비진리조건적인 의미로, 각각의 대답이 간접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4)의 대답을 좀 더 (비형식적으로) 풀어 쓰면 (4'')와 같이 되며, 이 때 문제는 왜 질문자는 청자가 문장부사에 해당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대하게 되는냐는 것이다.

- (4'') a. Yes, (purportedly,) John beat my son.
진리조건적 의미: 존이 내 아들을 때렸다.
비진리조건적 의미: 나는 존이 내 아들을 때렸다는 사실을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알았다.
- b. No, (purportedly,) John did not beat my son.
진리조건적 의미: 존이 내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
비진리조건적 의미: 나는 존이 내 아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알았다.

- (5) a. Honestly, John likes Mary.
b. Honestly, does John like Mary?

이들 질문에 대해서, 청자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 (6) a. Yes, honestly, John likes Mary.
b. No, honestly, John does not like Mary.

즉 응답에서 *honestly*가 사용될 때, 청자는 자신의 대답이 진실한 대답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화자는 질문에서 *honestly*를 사용함으로써 청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며 (즉 *honestly*의 시점이 청자에게로 이동하며), 청자는 응답에서 *honestly*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함을 나타내는 것이다.²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논문은 영어 증거성 부사, 그리고 *honestly* 등과 같은 문장부사의 의문문에서의 시점 이동을 형식의미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우선 이 논문의 이론적 가정, 즉 Kaplan (1989)이 제안한 지표어의 의미론과 Hamblin (1973)이 제안한 의문문의 의미론에 대해서 살핀다. 3절에서는 Lim (2010, 2013)에 기반하여 증거성 문장부사의 어휘항목을 제안하며, 이 어휘항목과 2절에서 가정된 의미론에서 어떻게 의문문에서의 증거성 시점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인다. 4절에서는 이 논문에서 제안된 분석에 대한 가능한 반박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5절은 논문을 마무리하며, 남아 있는 문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핀다.

2. 이론적 가정³

2.1 Kaplan (1989)의 지표어의 의미론

Kaplan (1989)의 지표어의 의미론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두 문장을 보자 (두 문장에서 *must*는 모두 인지적 양상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가정한다). (7a)에서는 주어가지표어이며, (7b)에서는 주어가 한정기술구(definite descriptions)이다.

- (7) a. He must be rich.
b. The president of GM must be rich.

(7a)가 John을 *he*의 지시 대상(reference)으로 가리키면서 발화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발화가 이루어지는 그 문맥에서 *he*의 지시 대상은 John으로 결정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때 *he*의 지시 대상은 인지적 양상 조동사가 도입하는 가능세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7a)는 화자의 지식과 양립가능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John이 부자일 경우, 오로지 그 경우에만 참이 된다. 하지만, (7b)의 경우 (*the president of GM*이 *de dicto*로 해석될 경우, 즉 *must*가 *the president of GM*보다 더 넓은 영향권을 가질 경우) *the president of GM*

² 이 부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³ 이 절은 Lim (2010, 2013)에서 제시되어 있는 Kaplan (1989)와 Hamblin (1973)의 요약에 기반한다.

의 지시 대상은 가능세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즉 (7b)는 화자의 지식과 양립가능한 모든 가능세계에서, 각각의 가능세계에서의 GM의 회장이 부자일 경우, 오로지 그 경우에만 참이 된다. 이 경우 가능세계에 따라 GM의 회장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Kaplan (1989)은 *I, here, now* 등의 지표어는 가능세계에 대해서는 독립적이지만 문맥 (context)에 대해서는 의존적이며, 따라서 이 지표어들의 지시 대상은 문맥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한 번 발화 문맥에 의해서 지시 대상이 주어지면, 이 지시 대상은 어떠한 가능세계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형식화하기 위해 Kaplan (1989)은, 문법이 생성하는 문장의 의미를 원뜻 (character)이라고 불렀으며,⁴ 이 원뜻을 발화 문맥을 논항으로 취해서 그 문장의 내포 (intension), 혹은 명제 (proposition)를 내놓는 함수로 가정하였다. 한 번 원뜻이 생성되면, 이 원뜻의 의미 해석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뤄지게 된다. 먼저 화자가 한 문장을 발화할 때, 그 문장의 의미가 되는 원뜻은 화자가 위치해 있는 발화 문맥을 논항으로 취해서 명제를 내놓게 된다. 그리고 명제는 가능세계를 논항으로 취해서 진리치를 내놓는 함수로 가정된다. Heim and Kratzer (1998)를 따라서 Kaplan (1989)의 주장을 형식화하면 (8)과 같이 된다.

- (8) 임의의 문장 ψ 에 대해,
 - a. ψ 의 원뜻 $[[\psi]]_x = \lambda c. \lambda w. [[\psi]]^{c,w}$
 - b. 문맥 c 에서 ψ 의 내포 $[[\psi]]_d^c = \lambda w. [[\psi]]^{c,w}$

그리고, 발화 문맥은 발화가 이루어지는 가능세계 w , 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t , 화자 s , 청자 a 의 사중체 (quadruple)로 (9)와 같이 형식화된다.⁵

- (9) 발화 문맥 $c = \langle w^c, t^c, s^c, a^c \rangle$

이제 어떻게 Kaplan (1989)의 이론이 지표어의 의미를 설명하는지 (10)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 (10) I am rich.

Kaplan (1989)의 이론에서, 대명사 I 는 발화 문맥 c^* 의 화자 s^* 로 해석된다. 이를 형식화하면 (11)과 같다.

- (11) $[[I]]^{c^*} = [[I]]^{\langle w^*, t^*, s^*, a^* \rangle} = s^*$

⁴ 원뜻이라는 번역어는 이정민 (p.c.)에 따랐다. ‘특성’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번역어는 발화 문맥에 따라서 명제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character의 원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⁵ 여기에서 청자 a^c 는 Egan (2007), Egan et al. (2005) 등에서 주장된 상대주의 의미론에서 가정하는 평가자 논항과는 다르다. 청자는 문맥에서 발화자에 대응되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반면, 상대주의 의미론에서의 평가자는 문맥과는 별도의 평가자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상대주의 의미론에 대한 논의는 4.3 참조.

따라서, (10)의 진리조건은 (12)에서 보이듯이 c^* 에서의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Mary가 (10)을 발화했을 경우, I 는 Mary를 가리키게 되므로, (10)은 Mary가 c^* 에서 부자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 된다. 마찬가지로, Tom이 (10)을 발화했을 경우 I 는 Tom을 가리키게 되므로, (10)은 Tom이 c^* 에서 부자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 된다.

- (12) a. 만약 s^* 가 Mary라면, $\llbracket I \rrbracket^{c^*} = \llbracket I \rrbracket^{<w^*, t^*, s^*>} = \text{Mary}$
따라서, (8)은 Mary가 c^* 에서 부자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 b. 만약 s^* 가 Mary라면, $\llbracket I \rrbracket^{c^*} = \llbracket I \rrbracket^{<w^*, t^*, s^*>} = \text{Mary}$
따라서, (8)은 Mary가 c^* 에서 부자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증거성 문장부사의 의미도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형식화될 수 있다. (13)을 보자. (13a)가 문맥 c^* 에서 발화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13a)는 (13b)와 같은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13) a. Reportedly, John saw Bill.
b. Implication: s^* in c^* has reportative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John saw Bill.

(13b)는 화자의존적이다. 즉 s^* 의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13a)의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달라진다.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만약 화자가 Mary이면 (13a)는 (14a)에서 보인 것과 같은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화자가 Tom이면 (13a)는 (14b)와 같은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 (14) a. 만약 (13a)의 화자가 Mary이면 $s^* = \text{Mary}$
따라서, implication of (13a): Mary has reportative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John saw Bill.
- b. 만약 (13a)의 화자가 Tom이면 $s^* = \text{Tom}$
따라서, implication of (13a): Tom has reportative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John saw Bill.

2.2 Hamblin (1973)의 의문문의 의미론

Hamblin (1973)은 의문문은 가능한 응답들의 집합, 즉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명제에서 명제들의 집합을 도출하는 것은 의문사들의 어휘항목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who*는 주어진 문맥에서 응답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그리고 Hamblin (1973)은 의문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의문문, 즉 yes-no 의문문의 경우는 명시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whether*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who*의 어휘항목은 (15a)와 같이

되며, *whether*의 어휘항목은 (15b)와 같이 된다. 여기에서 *whether*는 어떠한 명제에 대해서 명제 그 자체와 그 명제의 부정인 명제의 집합, 즉 긍정의 응답과 부정의 응답을 대응시키게 된다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이후의 논의는 yes-no 의문문만 다룬다).

- (15) a. $\llbracket who \rrbracket = \{x_e : x \text{ is a person}\}$
- b. $\llbracket whether \rrbracket = \{\lambda p_{st} \cdot p_{st}, \lambda p_{st} \cdot \sim p_{st}\}$

런데 의문사들이 개체, 속성, 또는 명제를 취하는 함수의 집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미 합성을 함수와 논항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Heim and Kratzer (1998) 식의 형식의미론을 우리가 가정한다면, 논항이 집합의 원소인 경우 (16a), 함수가 집합의 원소인 경우 (16b), 혹은 논항과 집합이 모두 함수의 원소인 경우 (16c)가 생겨나게 되며, 이런 경우 Heim and Kratzer (1998)에서 가정하는 함수 적용 (functional application: FA) 규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16) a.
$$\begin{array}{c} \diagup \quad \diagdown \\ \alpha_{\langle \sigma, \tau \rangle} \quad \{\beta : \beta \in D_\sigma\} \end{array}$$
- b.
$$\begin{array}{c} \diagup \quad \diagdown \\ \{\alpha : \alpha \in D_{\langle \sigma, \tau \rangle}\} \quad \beta_\sigma \end{array}$$
- c.
$$\begin{array}{c} \diagup \quad \diagdown \\ \{\alpha : \alpha \in D_{\langle \sigma, \tau \rangle}\} \quad \{\beta : \beta \in D_\sigma\} \end{array}$$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은 Hamblin (1973)을 Heim and Kratzer (1998)의 방식에 따라 재해석한 Heim and von Stechow (2001)을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 합성 규칙을 가정한다.

- (17) Pointwise Functional Application (PFA)
- If α is a branching node and $\{\beta, \gamma\}$ is the set of its daughters, then:
 - a. $\llbracket \alpha \rrbracket_d = \lambda w. \llbracket \beta \rrbracket_d(w)(\llbracket \gamma \rrbracket_d(w))$
 - b. or $\{\lambda w. \llbracket \beta \rrbracket_d(w)(x(w)) : x \in \llbracket \gamma \rrbracket_d\}$
 - c. or $\{\lambda w. f(w)(\llbracket \gamma \rrbracket_d(w)) : f \in \llbracket \beta \rrbracket_d\}$
 - d. or $\{\lambda w. f(w)(x(w)) : f \in \llbracket \beta \rrbracket_d \text{ and } x \in \llbracket \gamma \rrbracket_d\}$
- whichever is def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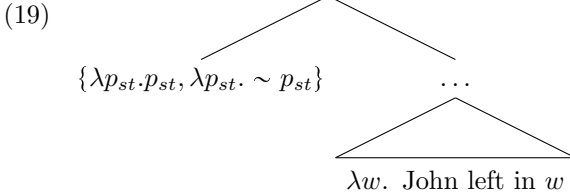
(17a)는 일반적인 함수 적용 규칙이다.⁶ (17b)는 논항이, (17c)는 함수가, (17d)는 논항과 함수가 모두 집합의 원소일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16a)의 경우 (17b)를

⁶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15a)는 Heim and Kratzer (1998)나 von Stechow and Heim (2011)에서 제안된 내포 함수 적용 (intensional functional application)에 가깝지만, 이 차이는 이 논의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통해서, (16b)의 경우 (17c)를 통해서, (16c)의 경우 (17d)를 통해서, τ 유형의 원소들의 집합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예를 (18)을 통해 들어 보자. Hamblin (1973)에 따르면 (18)의 LF는 (19)와 같이 된다.

(18) Did John leave?



(19)에서, $\lambda w. \text{ John left in } w$ 라는 명제는 *whether*가 지시하는 집합 안에 있는 두 개의 명제에 결합하여야 한다. 논항이 아니라 함수가 집합의 원소이기 때문에, (17c)를 적용한다. 그 결과로 도출되는 것은 (20)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18)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한 응답, 즉 긍정의 응답과 부정의 응답의 집합을 지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begin{aligned} (20) \quad \llbracket (18) \rrbracket_d &= \llbracket \text{Did John leave?} \rrbracket_d = \llbracket \textit{whether} \rrbracket_d(\llbracket \text{John left} \rrbracket_d) \\ &= \{f(\lambda w. \text{ John left in } w) : f \in \{\lambda p_{st}.p_{st}, \lambda p_{st}. \sim p_{st}\}\} \\ &= \{[\lambda p_{st}.p_{st}](\lambda w. \text{ John left in } w), [\lambda p_{st}. \sim p_{st}](\lambda w. \text{ John left in } w)\} \\ &= \{\lambda w. \text{ John left in } w, \lambda w. \text{ John did not leave in } w\} \end{aligned}$$

3. 분석

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절에서는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에 대한 분석을 제안한다. 우선 3.1에서는 이 논문의 배경이 되는 Lim (2010, 2013)의 한국어 증거성 형태소의 분석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3.2는 3.1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에 대한 어휘항목을 제안한다. 3.3은 3.2에서 제안된 어휘항목을 평서문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3.4는 3.2의 어휘항목을 의문문에 적용하여 시점 이동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3.1 한국어 증거성 형태소의 경우: Lim (2010, 2013)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의 증거성 형태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한국어의 증거성 형태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송재복 1998, Chung 2007, Lim 2010, Kwon 2012, Lee 2013 등등),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논란이 없이 증거성 형태소로 인정되고 있는 ‘-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의 ‘-더-’ 역시 의문문에서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21a)에서처럼, 평서문에서 ‘-더-’는 화자가 문장에서 묘사된 사건에

대한 직접 지각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21b)의 의문문에서 ‘-더-’는 청자가 직접 지각 증거에 기반하여 질문에 대해 답을 할 것을 화자가 기대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증거성의 시점이 화자에게서 청자에게로 옮겨간다.

- (21) a. 철수가 영희와 만나더라.
- b. 철수가 영희와 만나더냐?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Lim (2010, 2013)은 한국어의 증거성 형태소가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여 원뜻을 내놓는 함수이며, 증거성의 의미는 문맥의 정의조건 (Heim and Kratzer 1998에 따르면 전제)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⁷

$$(22) \quad [-\text{더-}]^{c*} = \lambda p_{st}. \lambda c : s^c \text{ has only direct perceptive evidence relative to } p.p \\ (c \text{ 는 문맥을 나타내는 변수로, } \langle w^c, t^c, s^c, a^c \rangle \text{ 라는 사증체로 가정된다})$$

이 논문은 증거성 문장부사의 어휘항목 역시 한국어의 증거성 형태소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즉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여 원뜻을 내놓는 함수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3.2에서는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가 보이는 시점 이동 현상이 Lim (2010, 2013)에서 제시된 한국어의 증거성 형태소의 시점 이동 현상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3.2 제안

3.1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논문은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 역시 명제를 취해서 원뜻을 내놓는 함수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reportedly*의 어휘항목은 (23)와 같이 된다.

$$(23) \quad \text{임의의 발화 문맥 } c^* \text{ 에서,} \\ [[\text{reportedly}]]^{c*} = \lambda p_{st}. \lambda c : s^c \text{ has only reportative evidence relative to } p.p \\ (c \text{ 는 문맥을 나타내는 변수로, } \langle w^c, t^c, s^c, a^c \rangle \text{ 라는 사증체로 가정된다})$$

(23)에 따르면, 임의의 발화 문맥 c^* 에서, *reportedly*는 명제를 논항으로 받아서 정의 조건 (definedness condition)을 가지는 원뜻을 함수 합성의 결과로 내놓는다. 이 때 원뜻은 문맥을 논항으로 취해서 명제를 내놓는 부분함수 (partial function)인데, 이 부분함수의 정의 조건은, 논항으로 취하는 문맥 c 의 화자 s^c 가 p 에 대한 청취 증거 (reportative evidence)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즉 화자가 p 에 대해서 누군가로 부터 들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맥 c 가 이 정의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이 원뜻은 명제 그 자체를 결과로 내놓는다.

⁷ ‘-더-’에 대한 기존의 형식의미론 기반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더-’가 도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과거 시제적 의미다. 일단 우리의 논의 대상이 시점 이동 현상이고, 또한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영어의 문장부사들은 ‘-더-’와 같은 시제적인 의미를 도입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더-’의 시제적인 의미 역시 이 어휘항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형식의미론에서 ‘-더-’의 시제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로는 Chung (2007), Lee (2013), Lim (2012) 등을 참조할 것.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첫째,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를 적용해서 나오는 원뜻이 c^* 를 직접 논항으로 취한다면, 증거성 문장부사가 도입하는 정의 조건과 지표어들은 모두 c^* 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되게 된다. 즉, 증거성 문장부사와 지표어들 모두 c^* 의 화자, 즉 s^* 의 시점에서 해석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원뜻이 c^* 의 화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원뜻이 집합의 원소일 경우), 지표어는 여전히 s^* 의 시점에서 해석되지만, 증거성 문장부사의 의미는 s^* 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는다 (즉 시점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예측이 평서문에서, 두 번째 예측이 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3.3 평서문

이 절에서는 증거성 문장부사가 어떻게 평서문에서 증거성의 의미를 도입하는지, 그리고 이 증거성의 의미가 어떻게 화자의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즉 어떻게 증거성 문장부사가 지표어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관점에서 해석되는지를) (24)의 예를 통해서 보일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 증거성 문장부사 *reportedly* 를 포함하는 평서문 (24)는 ‘John 이 나를 보았다’는 진리조건적 의미 이외에, ‘나는 John 이 나를 보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어서 알았다’라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닌다.⁸

- (24) *Reportedly*, John saw me.
 \rightsquigarrow The speaker has reportative evidence regarding the fact that John saw the speaker himself/herself

우리는 (24)의 논리형식(LF)이 (25)와 같다고 가정한다.

- (25)
-

임의의 발화 문맥 c^* 에 대해서, (25)는 다음과 같이 연산된다.

- (26) a. $\llbracket (i) \rrbracket^{c^*} = \llbracket me \rrbracket^{c^*} = s^*$
 b. $\llbracket (24) \rrbracket^{c^*}$
 $= \llbracket reportedly \rrbracket^{c^*} (\llbracket John\ saw\ me \rrbracket)$ (by Functional Application and (26a))
 $= \llbracket reportedly \rrbracket^{c^*} (\lambda w. John\ saw\ s^* \text{ in } w)$ (by (23) and Functional Application)
 $= \lambda c: s^c \text{ has reportative evidence re. } J. \text{ saw } s^* \text{ in } w^*. \lambda w. John\ saw\ s^* \text{ in } w.$

⁸ 이후 \rightsquigarrow 는 해당하는 문장이 도입하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가리킨다.

(26b)에서, 증거성 문장부사에 의해서 도입되는 정의 조건은 c 에 대한 정의 조건인데, 이 c 는 여전히 람다 연산자에 의해 결속되어 있다. c^* 의 화자 s^* 가 (24)를 실제로 발화할 때 (26b)의 원뜻은 c^* 에 적용이 되게 되며, 정의 조건에 따라 c^* 의 화자 s^* 가, John이 s^* 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청취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바꿔 말해 John이 s^* 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들었을 경우, 오로지 그 경우에만 이 원뜻은 $\lambda w. \text{John saw } s^* \text{ in } w$ 라는 명제를 내놓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가능세계에서 John이 s^* 를 만났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24)는 참이 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의 첫 번째 예측대로, *reportedly*와 지표어 모두 s^* 의 시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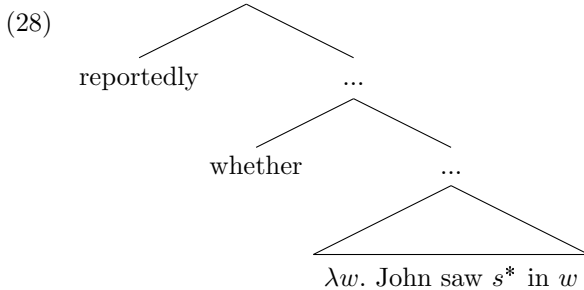
3.4 의문문

이 절은 이 논문의 핵심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의문문에서는 평서문과 다르게 증거성 문장부사가 청자, 혹은 질문을 받는 사람의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를 증거성 문장부사 *reportedly*를 포함하는 의문문 (27)을 통해서 보일 것이다. 아래에서 보이다시피, (27)은 의문문의 일반적인 의미 (“John이 나를 보았니?”)에 해당하는 진리조건적 의미 이외에, 청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기반하여 답을 하기를 화자가 기대한다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지닌다.

(27) *Reportedly*, did John see me?

~> The speaker expects the addressee to answer whether John saw the speaker based on the addressee’s reportative evidence.

우리는 Lim (2010, 2013)를 따라, (27)의 LF가 (28)이라고, 즉 *reportedly*가 *whether*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자. 왜 *reportedly*가 *whether*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져야 하는가? 또는, 왜 *reportedly*가 *whether*보다 나중에 결합하여야 하는가? Lim (2010, 2013)에 따르면 이는 유형 불일치 (type-mismatch)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reportedly*는 명제를 받아서 원뜻을 내놓는 함수이다. 즉 *reportedly*의 유형은 $\langle st, \langle c, st \rangle \rangle$ 가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29)처럼, *reportedly*가 *whether*보다 먼저 명제에 결합한다고 가정해 보자.

(29) [whether [reportedly [λw . John saw s^* in w]]]

이 경우 *reportedly*가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여 나오게 되는 결과의 유형은 원뜻의 유형, 즉 $\langle c, st \rangle$ 가 된다. 하지만 2.2의 (15b)에서 우리는 *whether*를 $\langle st \rangle$ 유형의 명제를 취해서 $\langle st \rangle$ 유형의 명제의 집합을 내놓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reportedly*가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여 나오는 $\langle c, st \rangle$ 유형의 원뜻이, 명제를 취하는 *whether*와 어떠한 식으로든 결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유형 불일치). 이러한 연산상의 난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whether*가 먼저 명제와 결합하고, 이 결과물이 *reportedly*와 결합한다고 가정한다.

이제 (28)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자. 평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발화 문맥 c^* 에 있어서 *me*는 s^* 를 가리킨다. 따라서 *reportedly*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의문문, *whether John saw me*는, 2.2에서 연산된 것과 동일하게, (29)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긍정의 대답과 부정의 대답의 집합이 된다.

(30) $\{ \lambda w$. John saw s^* in w , λw . John did not see s^* in $w \}$

위에서 *reportedly*는 명제를 논항으로 취해서 원뜻을 내놓는 함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reportedly*는 PFA (17b)에 의해 이 집합의 원소인 각각의 명제에 적용되게 되고, 그 결과로 긍정의 응답과 부정의 응답에 해당하는, 두 개의 원뜻의 집합이 도출된다. 이 집합은 (31)과 같다.

(31) $\{ \lambda c$: s^c has reportative evidence re. J. saw s^* in w^* . λw . John saw s^* in w , λc : s^c has rep. evi. re. J. did not see s^* in w^* . λw . John did not see s^* in $w \}$

이 시점에서, Hamblin (1973)의 제안에 따른 의문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Hamblin (1973)에 따르면, 화자가 어떠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응답들의 집합을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즉 집합이 전체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즉 응답들 각각은 화자 자신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는다. 오로지 청자가 이들 원소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 자신의 응답으로 선택할 때에야 비로소 이들 응답은 청자에 의해서 발화되게 된다. 응답의 유형이 무엇이든, 즉 명제든 원뜻이든 간에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를 (31)에 적용해 보면, (31)에 나와 있는 집합에 원소로 속해 있는 원뜻들은 화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화되지 않으며, 오로지 청자가 이들 원뜻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응답으로 택해야 발화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31)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31)은 긍정의 응답에 대응되는 원뜻과 부정의 응답에 대응되는 원뜻, 두 원뜻의 집합이다. 각각의 원뜻에서 지표어 *me*는 s^* 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지만, 정의 조건은 여전히 c 의 정의 조건이며, c 는 여전히 람다 연산자에 의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이 두 가지 원뜻 가운데 어떤 것도 s^* 에 의해서 직접 발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s^* 에 의해 발화되었다면 각각의 원뜻이 이미 c^* 에 적용되어서

명제를 도출했어야 한다). 즉 증거성의 의미가 아직 s^* 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증거성의 의미는 청자가 해당하는 원뜻을 자신의 응답으로 선택했을 때, 오로지 그 경우에만 원뜻이 청자의 문맥에 적용됨으로써 청자의 시점에서 해석이 되게 된다. 따라서, 지표어는 여전히 s^* 의 시점에서 해석되지만, 증거성의 의미는 청자의 시점에서 해석이 되는, 즉 시점 이동 현상이 도출되게 된다.

4. 몇 가지 쟁점들

4절에서 우리는 3절에서 제안된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4.1 상대주의 의미론

이 논문의 분석에 대한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Egan *et al.* (2005), Egan (2007), Stephenson (2007) 등이 최근 인지적 양상의 의미 해석을 위해 제안한 상대주의 의미론 (relativistic semantics)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한 문장의 의미는 문맥과 가능세계 뿐만 아니라 ‘평가자 변항’(assessor parameter)에 대해서도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32)에서 보인 것처럼, $[\psi]$ 로 표현되는 해석함수에 c 와 w 이외에도 평가자 변항 a 를 덧붙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2) \quad [\psi]^{c,w,a}$$

이들의 주장을 증거성 문장부사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증거성의 시점은 c 나 w 가 아니라 a 에 의존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즉, 평서문에서는 a 가 화자이고, 의문문에서는 a 가 청자라고 가정한다면 의문문에서의 증거성의 시점 이동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간단함과 직관적인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론을 택하지 않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러한 설명은 합성성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이론적 기제를 설정하는, *ad hoc*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기에, 평서문에서는 평가자 변항이 화자이지만 의문문에서는 평가자 변항이 청자라는, 이 이론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안을 어떤 별도의 가정이 없이 어떻게 합성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도출할지가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다.⁹

둘째, 상대주의 의미론을 옹호하는 필자들이 드는 평가자 논항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이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 역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상대주의 의미론의 가장 중요한 논거 가운데 하나가 화자들 사이의 의견의 불일치 (disagreement)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인지적 양상 연산자들 (epistemic modals)과 취향 술어 (taste predicates)이다. 취향 술어의 예를 들어 보자. 같은 종류의 음식을 두고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은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

⁹ 한 심사자의 의견에서 암시되었듯이, 문맥에서 도입되는 청자 (a^c)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증거성 문장부사들이 왜 평서문에서는 화자 (s^c)의 증거를 나타내지만 의문문에서는 청자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지를 설명하여 주는 별도의 기제가 필요하게 된다. 즉 평가자를 도입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마주하게 된다.

- (33) a. John: This is delicious.
 b. Mary: No, that's not true. This is not delicious at all.

(33)과 같은 대화는 자연스럽다. 즉 같은 음식을 두고 A는 맛이 있다고, 그리고 B는 맛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진리치가 정반대인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인 것처럼 여겨지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Kaplan (1989)에서 도입된 문맥, 화자, 그리고 청자의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다. 대화상 문맥은 두 명의 화자에게 있어서 모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33a)와 (33b)에서 두 명의 화자, John과 Mary는 이미 ‘주어진 것’이 되며, 이는 대화상에서 변하지 않는다. 즉 외견상 진리조건이 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대화를 ‘변하지 않는’ 문맥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주의적 의미론의 주장자들은 평가자 논항을 별도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33a)는 John이라는 평가자에 대해서 참이고, (33b)는 Mary라는 평가자에 대해서 참이 된다.

하지만 Stojanovic (2007)은 불일치에 대한 상대주의 의미론의 주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33)을 다시 예로 들어 본다면, 어디까지나 각각의 화자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염두에 둔다면 (33)은 상대주의 의미론에서 이야기하는 강력한 ‘불일치’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von Fintel and Gillies (2008) 역시 상대주의 의미론에 대한 몇 가지 반례를 내놓는다. 특히 이들은 인지적 양상 연산자에 대한 상대주의 의미론에 대해 소개한다. 상대주의 의미론이 드는 예는 다음과 같다 (Kratzer 1986: von Fintel and Gillies 2008: 78에서 재인용).

- (34) Suppose a man is approaching both of us. You are standing over there. I am further away. I can only see the bare outlines of the man. In view of *my* evidence, the person approaching may be Fred. You know better. In view of *your* evidence, it cannot possibly be Fred, it must be Martin. If this is so, *my* utterance of (5) and *your* utterance of (6) are both true.
- (5) The person approaching might be Fred.
 (6) The person approaching cannot be Fred.

Had *I* uttered (6) and *you* (5), both our utterances would have been false.

(34)에서 우리는 (33)과 마찬가지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주의 의미론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평가자 변항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von Fintel and Gillies (2008)은 Stojanovic (2007)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견해가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이들에 따르면, 상대주의 의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34)의 (6)이 반드시 (34)의 (5)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좀 더 엄밀하게

들여다 봤을 때, 과연 양상 연산자를 포함한 문장 전체가 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상 연산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명제 (소위 *prejacent*) 가 부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부정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상대주의 의미론은 부정의 이러한 복잡한 차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평가자 변항에 근거한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2 상례적 함축

Potts (2005)는 (35a)와 같은 화제 지향 부사(*topic-oriented adverbs*)나 (35b)와 같은 화자 지향 부사(*speaker-oriented adverbs*), 그리고 (35c)와 같은 발화 수식어(*utterance modifiers*)가 상례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였다.

- (35) a. {Cleverly/Wisely}, Beck started his descent.
- b. {Unfortunately/Luckily}, Beck survived the descent.
- c. Confidentially (speaking), Sal is about to get canned.

하지만 위의 분석에서 증거성 문장부사는 증거성의 의미를 정의 조건으로, 즉 (Heim and Kratzer 1998에 따르면) 일종의 전제(*presupposition*)로 도입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왜 같은 문장부사로 보이는 부사들 가운데 어떤 것은 상례적 함축을 도입하고, 다른 것은 전제를 도입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우리의 응답은, 실제로 이 두 가지 부류의 부사가 구분된다는 것이다. 일단 (35)에서 언급된 부사들의 경우, 증거성 문장부사와는 달리, 의문문에서 이들 부사들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부사들은 증거성 문장부사와 같은 시점 이동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Potts (2005)에 따르면 상례적 함축은 어떠한 환경에서 사용되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Potts (2005)가 역시 상례적 함축을 도입한다고 주장한 *damn*과 같은 단어들이다. *damn*을 의문문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시는 (36)에 나와 있다.

- (36) Did you finally quit that damn job?

이 경우 *damn*은 화자의 입장에서 그 일이 아주 좋지 않다는 의미만을 나타낸다. 만약 시점 이동이 일어났다면, (36)에서 *damn*은 청자의 시점에서 그 일이 아주 좋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는 발견되지 않는다.¹⁰ 따라서 우리는 증거성 문장부사와, 마찬가지로 의문문에서 시점 이동을 나타내는 문장부사의 경우

¹⁰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청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damn job*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을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36)의 *damn*은 청자의 시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경우 *damn*은 일종의 인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문문에서의 시점 이동과는 명백하게 다르다.

(*honestly* 등) 상례적 함축이 아닌 전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한다.¹¹

4.3 다른 문장부사의 경우

마무리하기 전에, 서론에서 언뜻 언급하였던 *honestly* 라는 문장부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언뜻 생각하였을 때, *honestly*의 경우, 증거성 문장부사와는 다르게, 청자의 시점뿐만 아니라 화자의 시점도 반영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35)를 보자.

(37) *Honestly*, does John like Mary?

*honestly*가 청자의 시점에서 해석될 경우, (37)은 청자가 솔직하게 대답해 줄 것을 화자가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로 전달한다. 하지만 *honestly*는 화자의 시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며, 이 경우 (37)은 화자의 의문이 진정한 의문이라는, 즉 화자는 저 질문을 수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John이 Mary를 좋아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추가로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honestly*는 의문문에서 화자의 시점과 청자의 시점 사이의 중의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honestly*가 의문문에서 화자의 시점 역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 *honestly*는 의문문에서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하는 편이 좀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 (아래 (38)로 반복)은 여전히 청자 (또는 아래의 대답의 화자)가 진실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를 동반한다.

(38) a. Yes, *honestly*, John likes Mary.

b. No, *honestly*, John does not like Mary.

두 번째, 대부분의 영어 화자들은 (37)과 같은 문장에서 *honestly*가 화자의 시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이 의문문 전체가 부정적인 응답으로 치우쳐져 있다 (negatively biased)고 판단한다 (Andrew Simpson, Michael Shepherd, p.c.). (37)을 다시 예로 들어, 화자가 John이 Mary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사실을 청자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경우 화자는, 진짜로 John이 Mary를 좋아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므로, 여전히 (37)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때 이 질문에 동반되는 비진리조건적 의미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기대인데, 이는 John이 Mary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화자의 생각 때문이다.

¹¹ 또 다른 문제로는, 증거성 문장부사는 문맥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전제가 새로운 정보를 문맥에 도입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특정한 종류의 전제는 문맥에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우리는 Schlenker (2007)의 입장을 받아들여, 문맥에 의해서 직접 도입되는 전제는 새로운 정보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좀 더 자세한 논의는 Schlenker (2007) 참조.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37)과 같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화자가 여전히 John이 Mary를 좋아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고는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만약 확신을 하고 있다면 애초에 이러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화자가 알지 못한다는, 즉 화자의 무지가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화용론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화용론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 의문문에 *honestly*라는 부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사는 화자의 질문이 순수한 질문임을 나타내는 것처럼, 즉 화자의 시점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은, *honestly*가 포함된 의문문이 부정적인 응답으로 치우친 의미와, *honestly*가 해석되는 시점이 청자에게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의미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화자가 (37)과 같은 질문의 대답이 긍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에게 ‘솔직히’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여전히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honestly*는 증거성 문장부사와 마찬가지로 의문문에서 반드시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5. 결론 및 남은 문제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영어의 증거성 문장부사와, *honestly* 등의 문장부사가 보이는 의문문에서 보이는 시점 이동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증거성 문장부사가 명제를 논항으로 받아서 증거성의 의미를 정의 조건으로 하는 원뜻을 도출한다고 가정함으로써, 표준적인 지표어의 의미론 (Kaplan 1989)과 의문문의 의미론 (Hamblin 1973)의 의미론에 큰 수정이 없이 시점 이동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상대주의적 의미론이 왜 시점 이동 현상에 적용될 수 없는지, 왜 증거성 문장부사가 도입하는 의미를 상례적 함축으로 간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honestly* 등의 부사가 의문문에서 외견상 보이는 중의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하였다.

물론 이 논문에서 아직 설명하지 못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 우선 영어에서 증거성을 도입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인지적 양상 조동사 등의 의문문에서의 의미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문장부사를 시점 이동의 관점에서 좀 더 세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honestly* 등의 문장부사가 증거성 문장부사와 마찬가지로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이지만, Potts (2005)에서 상례적 함축을 도입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던 문장부사들은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부사들이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이는지를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Ernst (2002, 2009)에서 언급된 화자 지향 부사 (speaker-oriented adverbs)다.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사들이 포함된다 (아래의 예는 Ernst 2009: 500 참조).

- (39) a. 담화 지향 (discourse-oriented): *frankly, honestly, briefly, ...*

- b. 평가 (evaluative): *unfortunately, amazingly, mysteriously, conveniently, oddly, appropriately, ...*
- c. 인지 (epistemic): *probably, definitely, possibly, clearly, apparently, obviously, ...*

서론에서 언급된, 증거성의 의미를 도입하는 부사들 (*purportedly, supposedly, allegedly, reportedly, apparently, ...*)은 Ernst (2009)의 이 목록에서 (39c)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apparently*가 (39c)에 포함된 것을 볼 때). 그리고 (39b)의 부사들은 Potts (2005)가 상례적 함축을 도입한다고 가정했던 부사들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우리는, 앞에서 증거성을 도입한다고 가정된 부사들에 덧붙여서, (39a)의 담화 지향 부사들과 (39c)의 인지 부사들이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여전히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각각의 부사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의문문에서 어떠한 식의 의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이는 부사들이 부사에 대한 기존의 분류에서 포착될 수 없는 분포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점 이동 현상을 보이는 부사들의 통사적인, 그리고 의미적인 공통점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부사의 전반적인 통사/의미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다음 연구의 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References

- 송재목. 1998. 안팎을씨끝 ‘더’의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135-169.
- Chung, Kyung-Sook. 2007. Spatial Deictic Tense and Evidentials in Kore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187-219.
- Egan, Andy. 2007. Epistemic Modals, Relativism and Assertion. *Philosophical Studies* 133, 1-22.
- Egan, Andy, John Hawthorne, and Brian Weatherson. 2005. Epistemic Modals in Context, In Gerhard Preyer and Georg Peter (eds.), *Contextualism in Philosophy*, pp. 131-169. Oxford University Press.
- Ernst, Thomas. 200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nst, Thomas. 2009. Speaker-Oriented Adverb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7, 497-544.
- von Fintel, Kai and Anthony Gillies. 2008. CIA Leaks. *Philosophical Review* 117, 77-98.

- von Fintel, Kai and Anthony Gillies. 2010. Must...Stay...Strong! *Natural Language Semantics* 18, 351-383.
- von Fintel, Kai and Irene Heim. 2011. *Intensional Semantics: Lecture Notes*. Ms., MIT.
- Garrett, Andrew. 2001. *Evidentiality and Assertion in Tibetan*. Ph.D. Thesis, UCLA.
- Hamblin, Charles Leonard. 1973. Questions in Montague English. *Foundations of Language* 10, 41-53.
- Heim, Irene and Kai von Fintel. 2001. Class Notes for 'Advanced Semantics,' Ms., MIT.
- Heim, Irene and Angelika Kratzer. 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 Kaplan, David. 1989. Demonstratives. In Joseph Almog, John Perry, and Howard Wettstein (eds.), *Themes from Kaplan*, pp. 481-564. Oxford University Press.
- Kratzer, Angelika. 1986. Conditionals. *The Proceedings of Chicago Linguistics Society* 22, 1-15.
- Kwon, Iksoo. *Viewpoints in the Korean Verbal Complex: Evidence, Perception, Assessment, and Time*.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Lee, Jungmee. 2013. Temporal Constraints on the Meaning of Evidentiality. *Natural Language Semantics* 21, 1-41.
- Lim, Dongsik. 2010. *Evidentials and Interrogatives: A Case Study of Korean*. Ph.D.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Lim, Dongsik. 2012. *Korean Evidential -te-: Inference from Direct Evidence*. In Jaehoon Choi, E. Alan Hogue, Jeffrey Punske, Deniz Ta, Jessamyn Schertz, and Alex Trueman (eds.), *Coyote Papers 20: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64-72.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Arizona.
- Lim, Dongsik. 2013. Questions, Characters, and Evidentiality. Ms., Hongik University (Submitted to *Natural Language Semantics*).
- Matthewson, Lisa, Henry Davis, and Hotze Rullmann. 2007. Evidentials as Epistemic Modals: Evidence from St'át'imcets.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7, 201-254.
- Potts, Christopher. 2005. *The Logic of Conventional Implic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Schlenker, Philippe. 2007. The Expressive Presupposition. *Theoretical Linguistics* 33, 237-245.

Simons, Mandy. 2007. Observations on Embedding Verbs, Evidentiality, and Pre-supposition. *Lingua* 117, 1034-1056.

Stephenson, Tamina. 2007. Judge Dependence, Epistemic Modals, and Predicates of Personal Taste. *Linguistics and Philosophy* 30, 487-525.

Stojanovic, Isidora. 2007. Talking about Taste: Disagreement, Implicit Arguments, and Relative Truth. *Linguistics and Philosophy* 30, 691-706.

접수 일자: 2012년 10월 31일

수정 일자: 2013년 5월 9일

게재 결정: 2013년 5월 24일